주 일 예 배

오전11시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Praise	다 같 이
통성기도	Prayer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Hymn 37	다 같 이
기 도	Prayer	김정순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22:1-2	인 도 자
설 교	아둘람 굴과 같은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
찬송과봉헌	Hymn 50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기도 : 서새롬 이의진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금)
수요성경공부	매수오후 7시 (예정)
가정교회예배	각 가정교회별로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 회 사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역	박종갑 장로 남관희 집사
선 교 사역	서정길 장로 안찬호 성도
양 육 사역	Kaitlan Hronek
미디어 사역	윤지호 집사
친 교 사역	정순영 집사 이현미 집사
찬 양 사역	이오현 집사 서새롬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7년 11월 11일 제67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716 E 56TH ST. TACOMA WA 9840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지난 주 월례회는 우리교회가 가진 15번째 월례회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교회 월례회는 항상 아무런 이견이나 논쟁이 없는 어찌 보면 공산당 전당대회 하듯 아무런 이견도 토론도 없이 일사불란하였지만 저는 그 일사불란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토론이나 회의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뒷담화만 무성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와 우리교회의 비전에 있어서는 분명 일사불란하여야 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하나 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와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과 생각이 분명 있을 터인데 한 번도 그런 생각과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와 실제적인 실무를 맡으신 장로님들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결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창립초기부터 지켜온 중요한 원칙 중 한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교인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목사 혼자 또는 장로님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면 신속하게 그리고 잡음 없이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목사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교회를 영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일사불란함이 건강함이 아니라 조금은 소란스러워 보여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기탄없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토론과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존중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해 질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있어 논쟁이 되었던 중요한 문제는 10월 결산을 하고 보니까 50%를 선교구제비로 제한 일반재정이 부족하였습니다. 목사의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생활비를 재정의 규모가 안정적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선교구제비에서 도움을 받아 지불하자는 의견과 한 번 정한 원칙을 분명히 지키데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반재정의 50%를 선교구제비로 사용하자는 우리교회의 원칙이자 비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아마 모든 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짧지만 지난 15개월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우리교회의 원칙과 비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한 번도 친교식사 준비를 위해 교회재정을 지출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교회 친교식사는 어느 교회에서도 찾기 힘든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였던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에 목사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 밥그릇 더 챙기려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목사 사례비를 줄일까 고민하는데 우리교회는 어떻게 서라도 목사 사례비를 더 챙겨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마음만으로 목사로서 저는 충분한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원칙은 지켜져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원칙은 형식만 남은 율법이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원칙이나 율법은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남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나 율법을 지키다 그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던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5:17-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지속해서 지켜 낼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 다윗의 주변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받은 자들 4백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삼상22:1-2)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비주류중 비주류였던 아둘람 굴의 4백 명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교회의 비전과 원칙은 세상에 자랑하고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교회 하나 쯤은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 꿈을 위해 아둘람 굴과 같은 자유교회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 꿈을 위해 오늘의 헌신과 희생을 기쁨으로 자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합시다.**
2.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시간에 가정별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봉헌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 **오늘도 친교식사를 위해 섬김으로 자원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 **박준호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최정아 성도님 사업체와 예배참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037.00	
감사헌금:	$370.00	
주일헌금:	$10.00	
특별헌금:	$800.00	**합 계: $2,487.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장애우를 돕는 밀알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우들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 북한의 땅에도 복음이 증거 되게 하시사 복음을 통해 민족의 통일이 앞당겨 지게 하옵소서.
- 샤론의 집을 통해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한인여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도산 경로 대학을 통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